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1, 1-11	제2독서	에페 1, 17-23	복음	루카 24, 46-53
--------	------	--------------	------	-------------	----	--------------

◎ 말씀 <주님의 사랑방법>

주님 승천 대축일은 승천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능으로 하늘에 올라갔음을 나타냅니다.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하늘로 오르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고 본기도의 표현대로 우리를 들어 높이는 사건입니다. 곧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전해 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전해주시고 승천 하시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끝까지 사랑하고자하는 그분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복음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음을 보았을 때 모두 외면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도망가고 숨어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죽을 준비 까지 되어 있던 으름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외면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쓴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며 평화를 전해주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끝까지 성장시켜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나약한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손을 드시어 당신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구원의 의망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용서가 깃든 사랑의 실천입니다. 당신을 외면했던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은 누구나 나약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을 줍니다. 복음은 전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이미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당신 사명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행하고 있는 것을 전해주십니다. 도망자의 신세였던 제자들 스승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제자들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당신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도록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6월 4일(화)	부활 제7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2,240.00 \$ 1,075.00
6월 5일(수)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전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315.00 \$ 200.00
6월 6일(목)	부활 제7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150.00 \$ 104.00
6월 7일(금)	부활 제7주간 금요일	구역모임	기타수입 원캠페인	\$ 600.00 \$ 200.00
6월 8일(토)	부활 제7주간 토요일	오전10시 (꼬미시움미사)	ACA 합계	\$ 100.00 \$ 4,984.00
6월 9일(일)	성령 강림 대축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아동: 22명 성인: 202명
교무금 봉헌자	정춘자(5-6월)엄혜진. 유지석(1-6월)임채봉(4-5월)윤정연(2-5월)박종연(2-4월)김현준. 송민자. 김에릭 양경민. 지영욱(5월)엄희수. 정태환, 박재례(6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불교에는 한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돈오’ 라는 말이 있고, 한 단계씩 천천히 깨달음이 깊어 지는 ‘점오’ 라는 말이 있다. 어둠 속에서 코끼리를 더듬어 본 사람들의 우화를 예로 들어보자. 귀를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앞뒤로 펼쳐이는 큰 부채 같다’ 고말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사원의 기둥같다’ 고말한다. 굽은 등을 만진 사람은 ‘커다란 왕의가족의자’ 라고, 뿔을 더듬은 사람은 ‘상아로 만든 둥근 칼’ 이라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한다. 모두들 직접 만져보고 확인했으니, 자기 말이 틀림없다고 우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로그때 햇불을 확 밝히는 순간, 그들은 모두 황당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햇불로 코끼리를 순식간에 알아볼 수 있는 돈오도 있겠고, 어둠속에서 코끼리를 골고루다 만져본 후에야 깨닫는 점오(漸悟)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리의 한자락만 붙들고 집착하는 아집을 비유한 말이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세상의 이치를 온전히 깨닫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절에는 여러 종파가 있고, 교회도 성서의 해석에 따라 교파가 많이 갈라져 있다. 하지만 개미가 코끼리의 존재를 알수 없듯이 사람 역시 하느님의 존재를 감히 알 수가 없다. 인간은 단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하느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구는 하느님을 의사로 만들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누구는 하느님을 투자자로 만들어 돈을 벌게 해달라고 빈다. ‘합격시켜 달라. 취직시켜 달라. 승진시켜 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 부탁하고 있는가. 나 역시 하느님을 해결사로 만든 의뢰인이 되었던 적이 많았다.

그런 어느날, 나는 하느님을 대하는 한 농부의 경건한 마음을 읽게되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그는 들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늘 성당에 들려 무릎을 꿇고 몇시간씩 기도를 드렸다.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지켜본 주임신부가 농부의 신심에 탄복해서 “형제님은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기에 그다지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농부가 말했다. “저는 하느님께 무엇을 바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느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 하느님도 그런 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체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 원헤리나.헬레나/고공자.벨라뎃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박판기.세실리아의 영혼	국부자.마리아	생	손상령.세례자요한, 손재윤.베드로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벨라뎃다
연	이윤분.마리아의 영혼	이영숙.벨라뎃다			
			생	전윤리안나의 영육간 건강	김정애.헬레나

◎돌아섬◎

간장종지  
 그리 많은 섬 있어도 이만한 섬 있을 까 사람 없는 무인도부터  
 사람 있어도 아픈 섬에 살다 놓아본 다리 이어지지 않고 상처로 아린 부실공사 현장 떠나  
 돌아오는 따스한 품 막지말고 더는 상처 주는 다리 놓지 말라고 기다리시는 어머니  
 굴뚝에 사랑담은 밥 연기 피우고 부뚜막에서 구수한 장국 끓이신다  
 못난 아들 돌아 섬을 위해서 김종대.가롤로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b>요르단+이스라엘</b> <b>성지순례</b>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b>FARMERS</b> <b>배정순 종합보험</b>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b>에어컨 수리</b>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b>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b>서은미 부동산</b> <b>RealtyOneGroup</b>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b>JIMMY KIM</b> <b>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b>최병엽공인회계사</b>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장 의사</b> <b>W.F.Gormley&amp;Sons</b> <b>Funeral Home</b>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공동체 소식(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감사합니다.  
사제관 축복식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도해주시고 도움주신 신자들과 은인들과 건축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사제관 건립위한 목주기도;총536,880단 봉헌.
- 2.교구 원 캠페인 모금을 마감합니다(6월말까지) 부족금액모금위해 신자들의 협조바래요(6천불) 감사합니다:김현준(\$200)
- 3.모임안내  
사회복지부:9일(일)교중미사후.루가방  
꼬미시움 :16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4.리노공소 미사  
일시:16일(일)오후3시 성당에서 출발  
참여단체;사회복지부 공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5.본당 야외미사 안내  
일시:2일(일)오전11시.폴섬  
장소:Lew Howard Park(작년과 동일 장소)  
행사내용:청백전게임(복장:구역팀에 맞는 색상)  
청팀:3.5.6.8.10구역 백팀:1.2.7.9구역  
친교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되세요.
- 6.봉성체 및 환자방문  
일시:7일(금)오전9시30분.신부님  
박성진.율리아 자매님께 미리 신청해주세요.
- 7.교구2차현금  
일시:2일(일) 모든미사  
목적: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 8.꼬미시움 야외행사(서북미)  
일시:6월8일(토)성당에서 오전7시 출발  
장소:Alum Rock Park (1535 Penitencia Creek Rd San Jose. CA) 문의;윤재경.알베르도
- 9.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기간:7월5일(금)4:30pm~7일(일)2:30pm.  
장소:꽃동네피정센터(37885 Woodchuck Rd.Temecula)  
참가비:\$160(한국어/영어 강의로 나누어 진행)  
자세한 내용:게시판참조
- 10.65번가 St.Mary's 묘소 현지답사 안내  
일시:22일(토)오전10시30분 성당에서 출발예정  
신청서는 연령회장님께 직접 수령바랍니다.  
한국Section 구성에 참여해주신 신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의: 고원석.바로로
- 11.감사합니다.  
첫영성체와 견진성사자 교리를 위해 수고하신 장선영.스콜라스티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제관정원수:임정남(소나무3그루)  
사제관내액자:박문교(성화) 감사합니다.

<주일/한글학교 소식>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문의:주일학교장)  
주일학교(3명)한글학교(2명)청소년성가대(1명)

- 식사봉사(이번주);야외미사 보조:신부님.이상일  
식사봉사(다음주); 성모회 보조: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1,2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화답송



전례봉사	주님승천대축일(6월2일)	성령강림대축일(6월9일)	삼위일체대축일(6월16일)	성체성혈대축일(6월23일)
해설	최금주.요안나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임상일.프란치스코
제1독서	김귀태.안셀모	이대원.베드로	윤여훈.로마노	김선식.플라비노
제2독서	김은영.프란체스카	이주연.크리스티나	남소영.세실리아	정미정.루시아
복사	최진호.이상인	최준우.장현철	김규철.윤여훈	허호영.장현철
봉헌/기도/청소	1-2구역	1-2구역	1-2구역	1-2구역
헌금위원	이영숙.임혜숙.이경희	전비아.유정임.나송희	임상일.안혜숙.박병수	고원석.윤재경.안강순